

4. 고려초 순천지역 호족의 동향

고려 초 전남지역 호족의 동향은 그 출신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즉, 나주지역의 호족과 순천지역의 호족은 모두 고려의 중앙정계에 진출하였지만 그 정치적 향배는 서로 달랐다. 나주지역의 호족은 견훤에게 귀부하지 않고 독자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궁예 휘하의 왕건과 연결을 맺고 태봉에 귀부하였다. 왕건은 903년부터 918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나주에서 군사활동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나주와 그 인근지역의 호족을 결집하였다. 이 시기에 왕건과 연결된 나주와 그 인근지역의 호족은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이었는데, 이들은 고려 건국 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결합하여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왕건의 즉위 이후 왕실의 지지기반이 되었던 나주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호족이 집결하여 경쟁하고 있던 개경의 중앙정부에서 나주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제한되었다. 나주 오씨 소생의 무(武)를 태자로 책봉하는 일이 패서지역(溟西地域) 호족의 반대로 3년이나 늦추어졌다. 이에 왕건은 무를 후원해줄 세력으로 나주지역의 호족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지역의 호족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나주 오씨, 영암 최씨 등 나주지역의 호족은 박술희(朴述熙), 복지겸(卜智謙) 등 충청도 해안지역의 호족과 연결을 맺고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존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930~935년 사이에 나주지역을 비롯한 서남해안지역 일대가 견훤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서남해안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에 패서지역 호족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어 고려정부 내에서 주도적인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혜종대의 왕위계승란은 혜종·박술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지역 호족과 요(堯)·소(昭)를 지원한 패서지역 호족 사이의 권력투쟁이었다. 이 권력투쟁은 패서지역 호족의 승리, 서남해안지역 호족의 패배로 귀결되었다. 그리하여 패서지역 호족은 왕권에 밀착하여 당시 권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에 나주지역 호족을 비롯한 서남해안지역 호족은 현저히 약화되어 몰락하였다. 그 결과 혜종의 외척인 나주 오씨 가문은 정종대에 중앙의 정치권력에서 배제되었다.

한편 순천지역의 호족도 후백제가 멸망한 후에는 고려의 중앙정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박영규는 후삼국 통일 직전에 고려에 귀부하여 왕건과 연결을 맺음으로써 상당한 정치적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박영규는 딸 한 명을 왕건의 부인(동산원부인)으로 납비하였고, 두 딸을 정종의 왕후(문공왕후·문성왕후)로 납비하였다. 이 세 건의 혼인은 물론 왕건의 의도로 이루어졌다. 왕건이 박영규의 딸과 혼인한 데에는, 박영규가 후백제 멸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이 혼인에는 왕건이 후백제 계열의 호족을 포섭하여 통어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왕건의 혼인정책은 그의 자녀들의 혼인에도 적용되었다. 왕건은 박영규의 두 딸을 정종의 왕후로 맞아들였다. 정종은 923년생이므로 박영규가 고려에 귀부하는 936~943년(혜종 즉위) 사이의 어느 해에 혼인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박영규의 두 딸을 정종과 혼인시킨 것은 후백제 계열의 호족을 무마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종대의 주도적 정치세력은 왕식렴을 중심으로 한 패서지역 호족, 정종의 외가인 충주 유씨 세력, 그리고 정종의 처가인 청주 김씨 세력·박영규 세력 등이었다. 이들 세력 중 정종의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왕식렴을 중심으로 한 패서지역 호족이 정치권력을 주도하였

다. 박영규도 정종대에 그 정치적 역할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그의 마지막 관계(官階)가 삼중대광이라는 최고의 관계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물론 이 관계가 어느 시기에 제수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정치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종의 재위기간은 4년에 불과하였다. 이어 왕위는 광종에게 계승되었다. 광종대에는 호족에 대한 대규모의 숙청이 단행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순천지역의 호족인 박영규 가문의 정치적 지위도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박영규 이후로 그의 후손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출세한 사례가 없는 데서 알 수 있다.

한편 박영규는 죽어서 해룡산신이 되었고 해룡산사에 모셔졌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먼저 산신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산신신앙은 천신(天神)숭배와 통하는 것으로, 고대·중세의 사람들은 높은 산에는 산신이 존재하여 하늘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다시 말하면, 산신이 하늘을 대신하여 지역민들을 감싸주고 보호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성황신앙과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양자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성황신앙이 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반면에 산신신앙은 본래 성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산성이 많아 점차 성황신앙과 산신신앙이 그 기능이나 성격에서 혼합되었다.

산신신앙이 이러하다면 박영규가 해룡산신으로 모셔진 것은, 김충이 성황신으로 모셔진 것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고 여겨진다. 순천지역의 주민들이 박영규를 해룡산신으로 받들어서 해룡산사에 모시고 제사를 지낸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군이었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그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은, 순천의 주민이 그를 순천의 수호신으로 신앙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된다. 박영규가 해룡산신으로 모셔진 것은, 순천지역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결집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참고자료

참국사기.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증평지.

강남악부.

호구총수.

증주문헌집.

완도문화원 편, 황보고의 新研究』, 1985.

박용숙, 『고려왕실 족내혼연구』, 새문사, 1988.

이순근, 「나말여초 지방세력의 구성형태에 관한 一研究」, 한국사연구』67, 1989.

정승모, 「성황사의 민간화와 향촌사회의 변동」, 泰東古典研究』7, 1991.

김갑동, 「고려시대의 성황신앙과 지방통치」, 한국사연구』74, 1991.

정청주, 「고문서 및 典籍」, 춘천시의 문화유적』, 1992.

김갑동, 「고려시대의 산악신앙」, 한기두박사화갑기념 한국종교사상의 재조명』,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3.

신호철, 후백제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1993.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연합정치」, 한국사상의 정치형태』, 1993.

박호원, 「고려의 산신신앙」, 민속학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1995.

정청주, 천라말고려초 호족연구』, 일조각, 1996.